

'월간 더문화' 열린 음악회

사단법인 더문화, 문화공간 이룸서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클래식 공연

'월간 더문화'는 사단법인 더문화(이사장 이운정)가 2022년에 새롭게 기획하는 올해의 주력 프로젝트로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0년 8월 설립된 사단법인 더문화는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번 프로젝트 '월간 더문화'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다른 주제로, 전복에서 만나 보기 힘든 세계적 명성의 예술가들과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열린 음악회이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전복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다함께 관객이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써, 도내 관광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프로젝트인 월간 더문화를 통해, 1회성으로 스쳐지나가는 행사가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복 도민들에게는 더 다양한 양질의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더 많은 무대와 연주 기회를 부여하여 전복도내의 문화예술 수혜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한다.

월간 더문화로 만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다음과 같다. 5월에는 '일라이나이 피아노 트리오', 6월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월간 더문화' 포스터

'신박 듀오'의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7월에는 흔히 볼 수 없는 첼발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인 첼발리스트 최현영, 8월에는 월간(음악춘추)가 선정한 '21세기 한국을 빛낼 젊은 연주자 23인'에 이름을 올린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9월에는 최정상 성악가들의 콤파레그룹 '크레도', 10월에는 EBS 세계테마기행에 출연한 바 있는 실력과 메조소프라노 '장은', 11월에는 바리톤 '박흥우'와 피아니스트 '이영신'이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한 자리에서 전곡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며, 12월에는

국내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다채로운 송년의 밤 콘서트를 개최한다.

월간 더문화, 그 첫 번째 문을 지난 '내일의 숲' 공연 때 감동의 엔딩무대를 선사했던 '일라이나이 피아노 트리오'가 연다. 일라이나이 트리오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동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부터 국내 최초로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전곡 연주에 도전하는 등의 끊임없는 연구와 연주로 관객을 만나왔다. 5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문화공간 이룸에서 일라이나이 트리오의 브람스의 피아노 트리오와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이번 프로젝트인 월간 더문화를 도내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도민과 지역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객이 문화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월간 더문화를 통하여 도내 예술인들이 서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은 무대 공연 기회로 인한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 창출 및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운정 이사장은 "지역민들이 2년동안 지속되어왔던 코로나에 빼앗긴 문화향유 기회를 월간 더문화를 통해 다시 회복하며 전복지역의 공연문화예술계에 다시금 활기를 띠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공연 기회를 잃었던 많은 예술인들에게도 다시 일어나 무대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고마운 당신께' 특집 공개방송

TBN전북교통방송, 개국 20주년 맞아 25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서 개최

TBN전북교통방송은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보답하기 위한 대규모 특집공개방송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개국 2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공개방송은 오는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감소세 분위기에 맞춰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고마운 당신께'라는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이날 공개방송은 방송인 조영규와 아나운서 신혜진이 진행하고, 가수 백지영과 홍진영, 조항조, 문화욕, 강승연, 테너 류정필, 김희진 등이 출연한다.

공개방송은 도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나 50인 이상 공연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북교통방송은 공개방송 시작에 앞서 교통사고 유자녀와 교통약자, 조손가정 등 다양한

지원계층을 돕기 위해 전북교육장학재단, 전북장애인복지관,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범죄 피해자에 5820여만 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전북경찰청,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은행과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이정상 사장은 "저희 교통방송이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게 됐는데 코로나19가 최근 주춤하면서 도민과 청취자들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면으로 특별방송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이번 특별방송에서 위로받길 희망하며, 공익 방송으로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통방송이 마련한 개국 20주년 특집 공개방송은 오는 28일 정오부터 102.5MHz와 106.1MHz(장수 등 동부 산악지역) 주파수를 통해 전파된다. /뉴스

전북대 최고위과정, '나눔음악회' 성료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부 릴레이 통해 모인 기금 어린이재단에 전달

전북대학교 최고위과정(ACE)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나눔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김동식 바리톤과 국악인 오정애, 가수 진성 등이 무대에 올라 동·서양의 음악이 하나 되는 하모니를 선보였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전북대 최고위과정 800여 명의 원우 및 가족들이 함께해 음악과 함께 화합하고, 지역을 위한 나눔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고위과정 원우들은 기부 릴레이를 통해 모두 800여 만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이날 음악회에서 박성학 8대 총동문회장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이 기금을 전달했다.

박성학 총동문회장은 "원우들의 정성이 모여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이 때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규모에 상관 없이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이날 음악회에 함께 한 김동원 총장은 "이번 나눔 음악회를 통해 이웃을 위한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하고, 동시에 최고위과정 원우 및 가족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며 "변화와 속도의 시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최고위과정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품격을 갖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 보따리'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열쭉마루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악나들이 '이야기 보따리' 공연을 개최한다.

28일 만날 공연인 '금대래궁'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서도민요 금대래궁의 가사를 모티브로 만든 어린이 국악곡으로, 노래 가사의 전설을 각색해 금대래 할머니가 사랑하는 손녀분이를 찾아 해매는 과정에서 만나는 동물친

구들과의 이야기를 극으로 풀어냈으며, 공연에서는 서도민요 금대래궁 배우기, 버나 돌리기 체험 등 소동형 공연으로 국악의 멋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공연은 5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은 전화(063-620-2329) 혹은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고 선착순 예약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문화가 있는 날' 주간 문화행사 풍성

도서관·박물관 등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익산시가 가정의 달 5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5.23.~5.29.)에 시민들의 일상 쉼표가 되어줄 다양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시는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특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금마도서관에서는 26일과 28일 각각 성인 15명,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커피 캔들·화분 꾸미기&커피자석을 만드는 '업사이클 커피클레이'를 운영한다.

황등도서관에서는 25일 다육이와 테라리움 디자인을 접목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식명으로 힐링하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도서관은 '일상 속 Living 소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25일 핸드위시와 공기정정스프레이 만들기, 26일에는 앞치마에 포인트 지수 놓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한박물관에서는 25일 '오감만족 공예체험 메시지를 담은 나만의 비단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다.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25일 백제왕궁박물관을 관람·체험하고 왕궁리유적을 답사하는 '무왕 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진행한다.

보석박물관에서는 28일과 29일 주말 동안 '귀금속·보석 및 화석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천연보석 팔찌 만들기과 무비즈 팔찌·공통열쇠고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5월뿐만 아니라 12월까지 문화가 있는 주간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생활문화센터에서는 25일 문화·음악·미술을 합친 '나의 동심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스토리텔링극과 그림책 원데이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매월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모든 익산시립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두배로 day'를 진행해 1인당 대출 권수가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2배 확대된다. /익산=이재춘기자

부안군의회 <https://council.buan.go.kr>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부안군의회

앞장 서겠습니다

지방의회 구현에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